

# 1. 2001년 통일정책 관련 주요 연설문

## (1) 2001년 대통령 신년사

2001. 1.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 첫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희망차고 행복한 이 한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는 우리 국민들이 용기를 되찾고 새로운 발전을 이루는 희망의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부도 철저한 자기 성찰 위에 총력을 다하여 국정개혁에 헌신함으로써 새해가 반드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영광의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지난 3년을 간단히 되새겨 봅니다. 그 동안 국민의 정부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의 4대 개혁과 동시에 지식정보화를 추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복지국가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외교정책과 ASEM의 성공적 개최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분단 반세기만에 민족의 역사에 평화와 협력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여 수백만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반을 둘러싼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기도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외부적인 영향도 큰 게 사실이지만, 우리 내부적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안일한 인식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철저히 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금융, 기업, 공공, 노동의 4대 개혁을 보다 철저히 했더라면 상황은 지금같이 어려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반적인 개혁의 방향은 옳았지만 실천이 철저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인 저의 책임이라고 통감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정부는 새로운 각오로 새해의 국

정에 임하여 금년을 고난의 극복과 희망에의 한해로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1세기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올해는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중차대한 해입니다. 경제의 재도약을 이루어 세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올 한해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면 '대추락'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고 4대 개혁을 완수할 때 우리의 미래에는 창창한 대도약의 내일이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의 경제전문기관과 인사들이 일치해서 내린 한국의 경제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한대로, 2월까지 제2차 4대 개혁의 기본과제를 완결 짓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상시 개혁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도록 하고 부실기업은 지체없이 퇴출시키겠습니다.

근로자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권리의 주장은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그러나 불법과 폭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문화 속에 기업도 살고 노동자도 사는 생산적 관계만이 우리 경제의 내일의 도약을 보장합니다.

새해에는 이 땅에서 부실금융기관이란 단어가 사라지도록 철저한 금융개혁을 일구어 낼 것입니다. 공공부문이 개혁의 모범이 되는 해가 되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노동, 금융, 공공부문의 4대 개혁을 마무리지으면 우리 경제는 올 하반기부터 다시 회복하여 세계적 경제강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은 무엇보다 경제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론 경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국정의 모든 분야가 고루 건전해야 국민은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금년의 국정의 5대 지표를 민주인권국가 구현, 국민 대화합의 실현, 지식경제강국 구축, 중산층과 서민보호, 그리고 남북평화협력 실현으로 정하고 이를 국민 여러분과 같이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완전한 민주·인권국가의 구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여야간 대화와 협력의 상생의 정치를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인권법과 반부패 기본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개정 등 개혁입법을 실현시키겠습니다.

둘째, 국민의 대화합을 이루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화합 없이는 국가경쟁력도 남북화해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배제하고 지역간·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혁도 단행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전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생물산업을 삼위일체로 발전시켜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미 작년말로 구축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인터넷 인구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인구 수가 유럽 각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2003년까지 전자정부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막강의 지식강국이 될 것입니다.

넷째,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을 기필코 안정시키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고용보험, 직업훈련, 실업자 고용업체에 대한 급여의 지원 등 현행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시켜 생산적 복지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전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기 활성화와 재래시장의 개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적극 발전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착실히 추진해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남북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완전한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확고한 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국민은 참으로 놀라운 저력과 애국심을 가진 국민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지금보다 더한 국가 위기도 혼연일체가 되어 극복한 국민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 능력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의약분업, 한국전력, 한국통신, 철도청 등 수많은 분규의 해결을 끝내 대화로 풀었습니다. 최대의 고비였던 금융노련의 파업도 마무리는 대화로 맺었습니다. 정계에서는 갈등도 많았지만 대화의 정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대한 국민과 함께 21세기 첫 해인 이 해에 새로운 국정의 출발과 경제적 도약의 기틀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착실히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하반기부터는 안정성장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세계적 선진국가가 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확신합니다. 자신을 가집시다. 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IMF 위기극복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비관만 하면 정말로 나빠집니다. 저를 믿고 같이 난국의 극복에 나섭시다. 우리들의 희망은 확실합니다.

저는 일시적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정도를 걷겠습니다.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국정의 선두에 서서 흔들림 없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간절히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함께 희망의 21세기의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 (2) 제82주년 3·1절 기념식 연설문

2001. 3.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 민족의 독립과 영광을 되찾으려 쫓아갔던 3.1독립운동 제8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 저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셨던 선열들의 위대한 뜻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리고자 합니다.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거국적 투쟁이었습니다. 선열들은 나라를 빼앗긴 최대의 국난에 처해서도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1운동을 비롯한 선열들의 독립투쟁은 세계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많은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일제 강점기간 동안 국내에서는 물론 시베리아, 만주, 중국대륙 등 국외에서 하루도 멈추지 않고 투쟁한 점입니다. 세계 어느 식민지 독립투쟁 역사에서도 찾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1운동을 이어받아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한 이래, 해방되어 귀국할 때까지 그 법통과 간판을 지켜냄으로써 민족자주독립이라는 민족자존의 의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선열들은 국권상실의 위기에서도 역사를 한단계 발전시켜냈습니다.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임시정부는 왕정복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민주공화국 수립을 지향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국권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하나로 굳게 뭉쳤습니다. 82년전 3월 1일 그 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가 없었고, 상하귀천도 없었으며, 좌우 사상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민족 자존의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민족적 저력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열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국내외의 여건으로 인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

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뭉쳐 민족적 저력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지식과 정보가 세계를 움직이는 21세기에는 세계 선두국가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40여년 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그리고 부실을 제거하는 국정의 대혁신을 추진해왔습니다.

아직 그 과정은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전세계로부터 민주인권국가로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언론자유와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집회와 시위와 결사의 자유가 제한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성지위가 크게 향상되었고, 시민운동이 놀랄만큼 활성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가 단독으로 처리하던 일들을 이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해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개혁의 내실을 기해나가는 작업을 하나하나 실천해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룩해온 민주인권국가를 더한층 성숙시키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이기주의나 무질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을 무시하고 남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는 일이 용인될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와 집단이기주의 또한 배격되어야 합니다. 이는 오직 나라를 병들게 할뿐이며, 우리 손으로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입니다.

저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주의의 원칙아래 법과 원칙이 엄정하게 준수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법과 제도는 적극 개혁해야겠습니다. 저는 국가보안법·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 각종 개혁입법들이 국민 여러분의 충분한 동의 아래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꾸준히 추진해온 4대 개혁으로 한국경제는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정경유착이나 권력의 금융 간섭은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부실투성이던 금융기관들이 거듭나고 있으며, 대기업들의 부채가 획기적으로 줄

었습니다. 마이너스였던 경상이익률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런 구조개혁의 고통 가운데 지난해에는 9%의 성장과 1,700억 달러의 수출, 120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되었으며 세계 일곱 번째의 순채권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이제는 상시개혁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응급수술 과정이었다면 앞으로는 병의 재발을 막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자기관리 과정이어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자동적으로 퇴출되어야 합니다. 시장 안에서 부실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민간을 앞서갈 수 있는 경쟁력을 지녀야 하며, 노사는 항상 기업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식기반경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앞서 갈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문화 창조력이 있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경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은 정보산업과 생명산업과 같은 지식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통산업 역시 지식정보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전국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완성한 것이라든가, 인터넷 사용 국민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정보통신 관련산업의 총생산은 133조원에 달했습니다. 이 분야의 수출 또한 전체의 29.5%인 5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식기반 경제강국, 세계일류경제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국가적, 국민적 실천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개혁의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 여러분의 어려움이 참으로 컸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선진복지제도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만약 그동안 마련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없었다면 인원감축과 같은 구조개혁 역시 제대로 추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민 연금제도를 실현했으며, 실업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왔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ILO는 우리 한국을 대량실업 대처의 모범사례로 선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복지는 OECD 국가 가운데에서도 중상위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안전망이 더욱 내실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고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는 등 중산층과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인 주택개량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에 정책과 예산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중에 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민족에게 참으로 역사적인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천명함으로써 대결과 불신의 반세기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보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 또한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공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며, 중국.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확고히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지금 북한은 변화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개방을 향한 북한의 변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고, 경의선 복원이 완공되면 남북관계에는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7천만 민족의 저력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남북 화해협력 노력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일관되게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98년 10월 저의 일본 방문 때,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가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이루어진 사회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의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저는 일본이 이와 같은 합의정신 아래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인근 나라들과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해입니다.

이번 달에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고 가을이면 경의선이 연결됩니다. 부산항이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로 부상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도 연말까지 완공됩니다. 우리나라가 바다와 육지와 하늘에 걸쳐 동북아시아의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의 일시적 어려움을 재도약의 기회로 바꾸려는 용기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다시 한번 3.1운동과 같은 민족적 저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이 힘을 합쳐 추진해 온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내실을 다져나간다면 우리에게 21세기는 분명 국운융성의 새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진의 발걸음을 잠시도 멈추지 맙시다. 20세기초의 뼈아픈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 다함께 후손들에게 영광되고 찬란한 미래를 물려주는 자랑스러운 조상이 됨으로써 3.1정신을 계승하고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합시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제56주년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

2001. 8.15

- "개혁과 화합으로 미래를 열어갑시다" -

존경하는 7천만 민족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동포 여러분!

제56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 뜻깊은 날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이 조국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위대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살아 계신 모든 광복 유공자와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빛나는 광복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열들은 일제하의 전 식민지 기간에 걸쳐 하루도 쉬지 않고 무장투쟁을 계속했으며, 3.1운동 이후 수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켜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민족만이 갖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와 더불어 회한의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일하게 한반도에서만 냉전의 유산이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해결하고자 출범과 더불어 햇볕정책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확고한 안보의 바탕 위에 북한과 평화공존·평화교류를 추진해 나가면서 장차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책은 우리 국민은 물론 미·일·중·러 등 주변 4대국과 전세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도 작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이러한 남북 공생의 대원칙을 수용했습니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역사적 대사건이었습니다.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평화에 대한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북·미 회담이 열리지 않고 남북회담의 진전도 중단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불가피하게 서로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은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이미 합의된 사항들에 대한 계속적인 추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재개에도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바랍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현재의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광복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비현실적인 냉전적 사고방식을 과감히 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급한 통일 지상주의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단계는 남북이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단계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민족적 위업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와 전 국민이 여기에 뜻을 모아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98년 10월 일본을 국빈 방문하여 한.일간의 새로운 관계를 여는데 일본정부와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정부는 과거를 반성하고 우리 국민에게 끼친 커다란 손해와 고통에 대해서 공식적 문서를 통해 「사죄」를 했습니다.

그 후 한.일간에는 정부와 국민 양면에서 새로운 관계가 급속히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이제 우리도 일본과 좋은 이웃관계를 갖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뜻밖에도 최근 일본내 일부세력에 의해 역사를 왜곡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한.일 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역사문제는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요, 미래의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끼친 수많은 가해 사실을 잊거나 무시하려는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으며, 미래를 안심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갖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또 한편으로 양식있는 많은 일본국민들이 역사왜곡과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의 확실한 역사 인식의 토대 위에 양국관계가 올바르게 발전되어 나갈 것을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의 여야 정치권에 대해 얼마나 실망하고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자 여당의 총재로서 저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

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날 국민의 정치불신이 이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국회·정당·선거 등의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대로는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뿐입니다. 하루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선 경제와 민족문제만이라도 서로 합의해서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대화와 화합의 정치를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 영수회담을 갖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총재께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한다",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한 바에 대해서 이를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한편 여권 3당의 협력관계도 계속 굳건히 유지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인권과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 앞으로도 추호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는 이 나라 역사상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것도 또한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 동안 진행되어 온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습니다. 저는 역사와 국민 앞에 저의 모든 것을 걸고 이를 굳게 다짐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래 민주인권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모든 노동운동을 합법화시켰습니다. 합법적인 시위, 집회, 파업의 자유도 보장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전례없이 발전시켰습니다. 선거의 공명성을 충실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했습니다. 권위있는 국제인권기구는 이미 한국을 미국과 유럽국가에 버금가는 민주인권국가로 인정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고통과 실망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미국·일본·EU·동남아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개혁에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반은 개혁을 통해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21세기 세계일류국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힘써온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IMF로부터 지원받았던 195억 달러의 차관을 3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1천억 달러 가까운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세계 5대 외환보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튼튼한 경제체질을 갖추도록 개혁을 계속 추진하는 것만이 생존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출의 부진도 해결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야 합니다. 기업지배구조도 선진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고 주식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신노사문화의 창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기업은 경영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성과는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사가 개혁과 협력 속에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기업·공공·노사의 4대 개혁의 추진과 함께 내수시장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술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촉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OECD는 최근 우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이 세계 1위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빛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있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개혁에 전력을 다해야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의 수출은 반도체·조선·자동차·철강·섬유 등에 주로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첨단정보통신(IT)·생명산업(BT)·문화컨텐츠

(CT)·환경산업(ET)·「나노」기술(NT) 등 차세대 성장산업을 병행해서 발전시켜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와 섬유 등은 물론 농어업에 이르기까지 전통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와 접목하여 높은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기업간의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지금 승자가 독식하는 세계시장 속에서 우리의 일류상품수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에 크게 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한 발 땀 때 우리는 두 발 뛰는 노력으로 따라잡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적인 능력과 저력은 능히 이를 해낼 것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동북아의 중추공항이 될 것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제3의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남북간의 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걸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류와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한반도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꿈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산층과 서민은 우리 사회의 기둥이며 초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개혁으로 많은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자는 것도 중산층과 서민 모두가 같이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서민과 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확충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실업·질병·노령·빈곤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사회안전망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여건도 저의 임기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총 17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의 교육여건이 명실공히 세계적 수준이 되도록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3만개의 교실을 증축하고 1,200개의 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내로 대폭 줄이겠습니다. 교원수만 2만 4천명을 늘리겠습니다. 대학교수도 2천명을 증원하여 학생 개개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의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키겠습니다. 유치원의 공

교육도 점진적으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내용과 교수·학습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또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과외가 줄어들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줄어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0~50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노년층을 위해서도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환위기로 「실업대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미국·일본·EU보다 낮은 3%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문제로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담을 끼친 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 속에서도 우리는 선진국 수준의 의료제도의 틀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연내 마련하여 내년부터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조기 무료 암검진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습니다. 난치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의 실시 등 노인 진료제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과 여가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과 레저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서민이 집 걱정만은 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94.1%인 주택보급률을 2003년까지 100%로 높이겠습니다. 특히, 8조 4천억원을 들여서 시중 집세의 절반만 부담하는 국민임대주택을 3년 동안 20만호를 건설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들의 소형 주택구입 및 전월세 소요자금도 그 70%를 장기 저리로 융자 하겠습니다.

임기 말까지 전자정부를 실현해서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화를 이루고, 부정부패의 소지를 제거하겠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 소득증대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고품질·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와 물류를 활발히 하여 농어가소득을 크게 높이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우리사주제도 등

성과배분제의 확산을 통해 근로자와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 세원이 크게 양성화된 만큼,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중국·베트남 등 동아시아에서는 「한류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굴뚝없는 기간산업인 문화산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준비에 만전을 다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민소득의 획기적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과감한 개혁과 국민의 협력입니다.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해 공동승리를 위한 협력의 길을 가야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비전과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 박사도 한국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앞서 나갈 수 있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혁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도 서로 협력하는 마음만 있다면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과 협력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미래를 열어 나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열들이 우리를 보살피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01. 9. 6

친애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제1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만 4천여 자문위원 여러분 모두를 환영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 동안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제9기 자문위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0기 자문회의에는 국내 각계와 해외 67개국에 계신 역량있는 지도자들이 대거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는 민족화합과 평화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결연한 모습을 대하면서 참으로 반갑고, 마음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은 출범 20주년을 맞이한 이 뜻깊은 해를 계기로 더한층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찬란한 평화의 시대를 여는 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흥망이 남북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된 미래는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7천만 민족의 안위가 걸린 문제요, 미래의 생존과 번영이 걸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해왔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해의 6.15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사와 세계평화의 역사에 참으로 의미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냉전의 빙벽이 녹기 시작했고, 남북간 화해협력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큰 흐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가 적극 지지하면서 평화에의 큰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평화에의 열망이 전쟁의 가능성을 소멸시키고 화해협력과 장차의 평화통일에 대한 출발점을 이룬 데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때부터 남북관계에는 많은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 국방장관회담과 장관급 회담, 3회에 걸친 3,600여 이산가족들의 감격스런 상봉,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4개 협정 합의,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조성 합의 등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 하나 하나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합의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햇볕정책이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은 한마디로 남북간 평화공존과 평화교류를 통해서 장차의 평화통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모든 것을 평화적으로 이루어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햇볕정책을 미 일 중 러 4대국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가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습니다. 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막으려면 두 가지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는, 당장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튼튼한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바로, 전쟁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항구적으로 만드는 햇볕정책의 추진입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과실이 크고, 그러한 가운데 공동번영의 길이 열린다면 전쟁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은 막아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민주평통의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역사와 국민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한 책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햇볕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한동안 남북관계가 정체상태를 맞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북 미간의 회담재개가 지연되고 있고, 남북회담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전 북한이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를 제의해옴에 따라 새로운 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부시] 미국 대통령과도 만나서 북 미 관계와 남북관계가 제 궤도에 오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향해 가는 길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남북한의 화해협력이라는 거대한 역

사적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전진의 고비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의연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가지고,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을 한 발 한 발 전진해 갈 것입니다. 민간차원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 모두는 반드시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근 우리의 햇볕정책을 최선두에서 이끌어온 통일부 장관이 사임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에 조그마한 차질도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힘을 합쳐서 평화공존, 평화교류의 햇볕정책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나아갑시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간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데 보수와 혁신을 나누는 냉전적 사고방식도, 조급한 통일지상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는 오늘날 우리 당대의 문제도 아니고, 어느 정권이 나 어느 정파의 문제도 아닙니다.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데 어떠한 정략이나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전 국민의 일치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단순히 교류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남북관계에는 엄청난 경제적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철도입니다. 얼마전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을 위한 조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에도 매우 중요시했던 것은 역시 철도연결 문제였습니다.

경의선과 경원선이 연결되면 우리는 육로를 통해 중국과 시베리아,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수송기간이 훨씬 단축되고 물류비도 크게 절감됩니다. 동시에 시베리아와 중앙 아시아에서 석유, 가스, 목재와 같은 자원들을 직접 들여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출발한 [철의 실크로드]가 파리와 런던까지 연결되고, 인천국제공항이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구인 부산항과 광양항을 더욱 발전시키면 우리 한국은 육 해 공을 통하여 동아시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과 금융, 보험 등 모든 경제분야도 같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한반도 시

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반드시 크게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친애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IMF 지원자금 195억 달러를 2년 8개월이나 앞당겨서 모두 갚았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던 외환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어린아이 돌 반지까지 들고 나와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던 국민의 자기 희생 정신과 '하면 된다'는 용기가 마침내 외환위기 극복의 위업을 이룩한 것입니다. 3년전 외환보유액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이 이제 1천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위업을 이룩한 우리 국민과,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정부 공무원 모두에 대해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외환위기 이래 우리는 기업 금융 공공 노사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미 적지 않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분야, 특히 인터넷과 정보인프라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생산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OECD 국가중 중상위권의 복지제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모범적인 민주인권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권위있는 세계 인권기구도 우리나라를 미국, 유럽과 같이 앞선 인권국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위기의 원인이 주로 우리 내부에 있었습니다. 한보와 기아사태처럼 기업경영의 부실과 사회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부요인이 큼니다. 세계 경제가 모두 어렵고, 특히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리의 3대 수출시장이 한꺼번에 침체되고 있는 것이 주요인입니다.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 경제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국면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개혁추진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세계 1등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분야를 선택하고, 이것을 집중해서 키워야 합니다. 1등 상품만이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노사화합입니다. 신노사문화를 정착시켜 산업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노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되어 있고, 협력체제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사 양측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해 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정치안정입니다. 중남미의 예를 보더라도 정치가 불안하면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남북으로 분단된 나라에 정치까지 불안하다면 어느 외국인이 투자하겠습니까. 여야는 대화를 통해서 민족문제와 경제 민생 문제만은 같이 협력하고 같이 풀어나가는 것만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키워간다면, 우리는 오늘의 경제난국을 극복할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 반드시 큰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세계 유수의 어떤 컨설팅회사는 한국이 10년 안에 세계 7대 경제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계의 기대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실현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일류의 지식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것, 그리고 남북간 평화와 교류협력을 이루는 것, 이 두 가지는 2001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해낼 때, 우리 민족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후손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받는 자랑스런 조상이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하나로 뭉쳐서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해 나가는 데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선두에 서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확신해 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선도에 의해 이러한 시대적 소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감사합니다.